

지역 소식통

완주군, 건강취약계층 무료 마스크 지원

완주군이 건강취약계층인 재가장애인, 희귀질환자, 암환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

23일 완주군은 코로나19 예방 일환으로 재가장애인, 희귀질환자, 암환자 약 190명에게 마스크 약 1700여장을 무료로 배부했다고 밝혔다.

군은 보건소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에게 1인 10매씩, 재가장애인은 1인 5매씩 1회 한도로 지난 20일에 우편과 등기로 마스크를 일괄 발송했다.

기자질향상과 면역력 약화로 감염과 합병증에 치명적인 건강취약계층은 누구보다 선제적인 코로나19 감염예방이 절실하다.

완주군은 이외에도 지난 17일 입산부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고, 각 부서별 긴밀한 협력과 대책마련 및 실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위생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및 정비 등의 방역활동 강화, 타국 유학생 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

김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이었지만, 지난 13일 이후부터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되었으며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예금잔액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김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6억 이상의 주택거래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용대상은 13일부터 체결한 주택거래계약으로 분양·임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다.

제출기한은 실거래 신고와 같이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귀농귀촌 1번지’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역 내 귀농인에게 좋은 반응 정책자금 융자·소형농기계·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등 다양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호남평야의 중심지로써 교통의 편의성은 물론 깨끗한 자연환경과 포도, 파프리카, 지렁이 쌀 등 고품질 농산물로 고소득이 가능하기에 귀농귀촌 1번지로 통한다. 이에 시는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융자사업,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귀농체

험지원, 선도농가 실습교육,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 등이 있다.

또한 전입한 귀농 귀촌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귀농 교육 100시간을 이수하고, 김제시 농촌 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에 한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주택 구입 및 중·개축,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설치, 축사 신·개축 등 농사 전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추

진 예정이다.

아울러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농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주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농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주는 농가 주택 수리비, 시설 하우스, 저온저장고, 관정 등의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중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매년 신청자 수가 늘고 있고, 특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소규모 농사를 짓는 귀농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박람회 참여 등의 계획된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힘내세요 여러분! 김제시가 응원할게요!”

김제 초동생들, 삼성생명연수소 생활치료센터에 응원 메시지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임종백)에서 삼성생명연수소 생활치료센터에 초동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다.

코로나19 격리 치료를 위해 삼성생명연수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환자 및 대구광역시 운영팀과 의료진 총 250여명의 대구시민들에게 손편지와 응원의 간식을 전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3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총 1,000개가 전달될 예정이다.

직접 쓴 손편지는 김제검산·백석·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작성했으며 한 초동학생은 “코로나19 치료받는 분들 힘내세요!! 모두 손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면 코로나를 이겨낼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삼성생명연수소 생활치료센터에서 초동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를 250여명의 대구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수 있어요!!”,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며 입소자들에게 패용의 메시지를, 의료진들에게는 “의료진님들이 계시어서 저희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겁니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산)의 지원으로 김제지역의 특산물인 지렁이 쌀로 만든 누룽지가

손편지와 함께 간식으로 전달되었다.

임종백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안함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지역에서 치료중인 입소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전하기 위해 메시지를 적어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치료중인 입소자분들이 하루 빨리 쾌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5년후 2천만원 목돈... ‘완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

완주군이 완주형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형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매달 12만원씩 5년간 납부하면 기업과 군 지원금을 합쳐 총 20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만 34세이하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35세이상 부터는 완주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근로자는 목돈 마련을 꾀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접수되는 사업과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를 통해 기업등록 후 근로자가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만 35세이상 기업의 핵심인력 선발제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접수와 심사를 거친 후 근로자 청약 신청을 안내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기업에는 핵심인력 유출을 막고 근로자에게는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죽산초등학교는 알뜰시장을 통한 수익금을 경상북도 지역의 학교에 재학중인 김제시 거주 축구유망주에게 지난 19일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죽산초 학생들의 선한 기부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에 ‘알뜰시장’을 통한 수익금 67만원 기탁

지난해 12월 죽산초등학교(교장 권의주) 관계자 및 학생회 간부는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병철)를 찾아 학생들이 ‘알뜰시장’을 통해 모금한 기금 67만원을 기탁했다.

학생들의 환경의식과 경제관념을 고취시키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알뜰시장’은 각 가정에서 잡자고 있는 활용이 가능한 도서, 학용품, 가방, 의류, 장남감, 체육용품, 생활용품, 애장품 등을 모아 판매하는 행사이며, 판매수익금은 죽산초등학교 ‘다모임’ 회의를 통해 아동·청소년 기정을 위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에 따라 후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는 학생들의 선한기부에 알맞은 대상을 선정하는데 깊이 고민한 끝에 코로나19사

태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지역의 한 학교에 재학중인 김제시 거주 학생에게 지난 19일 장학금을 전달했다.

축구명문고로 알려진 학교에서 기금을 인정받고 있는 B군은 녀너지 않은 가정 형편이지만 세계적인 축구선수를 꿈꾸며 한발 한발 자기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축구유망주로 죽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선한기부처럼 자신도 훗날 스스로 서게 되면 남을 돌아보고 돕는 선한기부에 동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희망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간다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교육부 평생교육 지원사업 공모

완주군이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평생학습도시 특성과 지원을 받게 돼 주민들에게 한층 강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3일 완주군은 2020년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선정돼 국비 315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학습형 일자리창출, 고용·복지 연계 내용으로 교육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다.

올해는 167개 평생학습도시 중 전국에서 17개 시·군·구가 선정됐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이 유일하다.

완주군의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은 ‘신중년 다시 온 봄 프로젝트’로 신중년 대상 △드론 전문인 양성과정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 △친환경 건축 실무자 양성과정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은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관내 사회적 기업, (사)휴먼속 연구소와 연계해 오는 5월~10월까지 진행한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은 “평생학습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해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임실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